

# 장애인 인권향상·지원책 마련 총력 차별화된 건강한 도시재생 집중

## 무주군, 무주하은의집 대책위원회와 탈시설지원조사 극적 합의

무주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하은복지재단(이하 재단)과 '무주하은의집 입소자에 대한 탈시설 지원조사' 이행 합의(7.6.)를 이룸에 따라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탈시설지원조사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주거, 소득, 건강, 활동보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 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 수립(대책위)과 검토(무주군)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이 된다. 예산은 도비(2천만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원활하고 투명한 조사 진행을 위해 무주군(2명)을 비롯한 전북도청(2명)과 대책위(3명), 재단 및 보호자(3명)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공동대표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감미경 과장과 대책위 강현석 위원장이 맡는다.

황인홍 군수는 "국가인권위 자문결과를 토대로 탈시설지원조사와 TF팀 구성이라는 극적 합의가 이뤄지게 된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과업을 달성해낼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의 장애인 탈시설지원 관련 정책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거주안정을 비롯한 소득보조와 활동보조, 건강·복지서비스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지립을 위한 후속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하은의집은 무주군 부남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로 지난해 7월,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무주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원회, 하은복지재단과 '무주하은의집 입소자에 대한 탈시설지원조사' 이행 합의를 이룸에 따라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했으며 관련 사건은 전라북도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의 무주군(조사주체)을 배제한 '민관합동 인권침해조사' 주장과 조사는 진행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녹취와 영상, 관계 공무원 및 보호자 참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무주군의 요구가 부딪혀왔다.

이에 무주군은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진행, 무주군의 요구가 침해조사에 걸맞다는 결과를 확인했으며 ▲탈시설지원조사 합의와 더불어 ▲대책위가 5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했던 무주군청 정문 점거 농성을 풀었다.

황인홍 군수는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가 장애인 인권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주하은의집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의 뼈아픈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무주하은의집 장애인과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여전한 격정과 우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로열젤리 자동화 생산 장비·화분건조기 지원

무주군이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열젤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장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로열젤리 자동화 생산 장비와 화분건조기를 지원한다.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가 대상으로 관내 등특한 양봉농가의 끝별 200군 이상 사육농가,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19~20년), 양봉자조금납부농가(19~20년 연속 납부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된다. 양봉농가가 자동화 생산 장비를 도입하면 노동력 절감, 대량생산이 가능해 연 5천만 원 상당의 신 소득원 창출 이상 사육 기준과 경영안정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최근 불철 저운 현상, 잦은 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벌꿀 생산량 감소와 FTA 체결 등으로 수입입이 증가해 양봉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봉농가 부가 소득원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양봉농

가의 경쟁력 강화와 양봉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 등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로열젤리는 어린 벌이 분비해 여왕벌의 먹이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섭취 시 빈혈, 고혈압 예방 및 치료, 노화 방지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g의 1병당 5만 원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군은 기술능력을 겸비한 양봉인을 육성하기 위해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도 마련하는 등 양봉농가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도시 개념 반영 위한 방향 모색

무주군이 14일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건강도시 개념 반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받기위한 사업의 고비를 담고 있다.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활성화 계획에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해 무주군이 갖는 '건강도시'의 이념을 도시재생에도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날 오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도시 개념 반영을 위한 방향 모색'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보였다.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우신구 교수, 이연숙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무주군의 경우 건강도시 유지를 위해 군민의 요구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강도시 이념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무주군민의 질병 개선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상자별 전략이 도시계획에 반영돼 건강한 도시로 자생하는 지속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황인홍 군수는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음이 최우선"이라며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도시 개념 반영을 위한 방향 모색"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보였다. "무주군의 경우 건강도시 유지를 위해 군민의 요구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강도시 이념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 '골든 타임' 확보 교육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금용)는 14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마령면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응급처치 교육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뤄졌으며 강사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이론과 마네킹을 사용한 실습 형식으로 진행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응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여름철 무더위 쉼터 운영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대응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무더위 쉼터 293개소를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268개소, 복지회관1개소, 읍·면사무소 7개소, 보건소 1개소, 은행 16개소 등 총 293개소다.

군은 현재까지 237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보해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일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관계자 협조를 통해 폭염특보 발령 시간에 탄력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 쉼터 위치와 이용 방법 등 무더위 쉼터 정보제공을 위해 군은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 조회를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여름철 폭염 노출 취약자인 주요 유원지 및 공터인 장수 누리파크 등 7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군민에게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경제총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 연장

진안군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진행중인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을 당초 9일부터 21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2,718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인터넷, 전화 및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조사에 한해 21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다만 대면 조사는 기존 계획대로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며 응답자가 희망

할 경우 비대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조사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사를 작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경제총조사 상황실(080-700-2020, 430-2650)로 문의하여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급급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에 우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장수군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코로나19로부터 농업·축산업·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예방에 나섰다.

장수보건의료원은 최근 도내 타 지역에서 발생한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이달 23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관내 농촌 현장 및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

고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모든 외국인인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외국인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가 합숙하고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유증상자 적극 검사 유도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